



연중 제4주일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이번 주간 축일

- 01/31(수):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02/02(금): 주님 봉헌 축일

■ 이번 주간 평일미사, 신심미사 안내

평일미사 - 1/30(화) 저녁 7:30, 1/31(수) 저녁 7:30,
성모신심 - 2/3(토) 오전10:00.

■ 주님 봉헌 축일(2/2) 초봉헌 안내

- 초축복 예절 일정: 2/4 (주일) 교중미사 중.
- 봉헌초 값: 5달러/개당.
- 내용: 제대초와 가정초를 각각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구입하실 분은 전례부에 1월 28일까지 신청).

■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본날, 2/16)

- 일시: 2/11(주일) 오전11:00 교중미사 중.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미리 봉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 미사: 2/14(수) 저녁 7:30
- 내용 :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날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 가정 십자가에 걸린 ‘성지’를 회수합니다.

- 기간: 2/11(주일) 까지
(1/28, 2/4, 2/11 바구니 성당입구에 비치)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

-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자세한 내용과 참여방법은 성당입구에 비치한 안내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28)	416	219	166	29
차 주 (2/4)	329	216	502	28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28)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문예나 요안나
		김말자 세실리아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2/4)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정예진 한나
		김명희 리드비나	정예찬 미카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우금
1/28주일	45명	249 달러	500 달러
(총 2 세대)			

연중 제4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1월 28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Forth Sunday of Ordinary Time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악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차게 고백하여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들의 참행복을 증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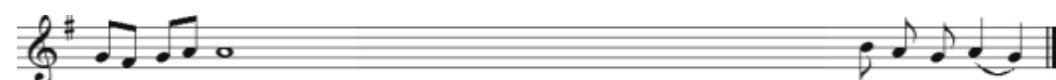
[복음] 마르코. Mk 1:21-28

카파르나움에서, 21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2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24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하고 꾸짖으시니, 26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27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28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제 1 독 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8,15-20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7,29-3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28

☦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발명가 에디슨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면 그는 서슴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시는 사랑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에디슨 어머니, 아무래도 이 아이는 학업을 따라가기에는 지능도 모자라고 유별난 행동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디슨(1847년~1931년)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유독 그의 어머니만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학교에 못 가도 네가 혼자서 열심히 독학을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잘하리라고 믿는다.” 그의 어머니가 일곱 살 아들에게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말은 형체를 지니고 분명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말도 나름대로의 힘을 지니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들린 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더러운 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더러운 영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도 낫게 하시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의 자비심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행동으로 그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능력과 힘이 있는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중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선하신 하느님께서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담과 악담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가져다주고 고통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우리도 늘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주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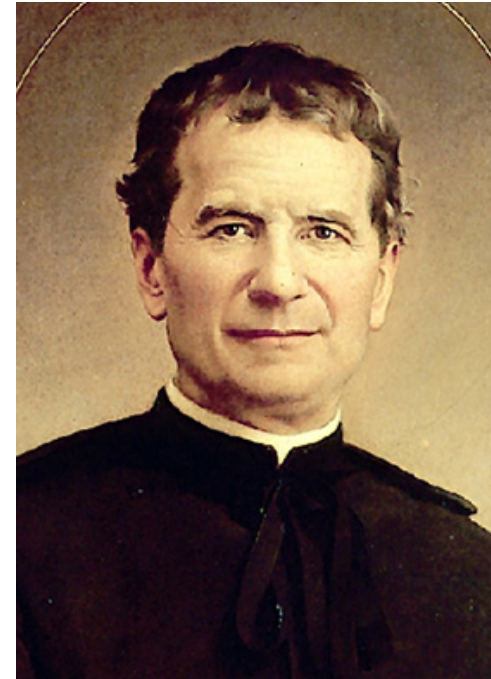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제임스 티소트 작품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 이주의 성인

성 요한 보스코(John Bosco) (1815~1888, 1월 31일)



창이었던 당시, 도시로 몰려든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에 빠졌고 교도소는 항상 수용자들로 넘쳐났다. 보스코 신부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오라토리오'라 부르는 기숙사를 세우고 그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과 공부를 가르쳤다.

특히 보스코 신부는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나 훈련보다 사랑으로 대하고, 각자의 개성과 신앙을 격려해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도왔다. 이러한 돌봄의 체현을 바탕으로 유명한 “예방 교육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돌봐야 할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는 평신도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들을 바탕으로 1859년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해 1869년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 청소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스코 성인은 1888년 선종하면서 “나의 아이들에게 천국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해 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1934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됐고,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청소년 교육의 선구자로서 살레시오 수도회와 살레시오 수녀회, 평신도 단체인 ‘살레시오 협력자회’를 창설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도직의 틀을 다졌다.

이탈리아 토리노 인근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26세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가장 먼저 소년원을 방문했다. 산업화가 한

가톨릭신문 박영호 기자

[교리상식]

교리상식

삼종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삼종기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11세기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타나 성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을 파병하면서 승리를 위해 하루에 세 번 성당의 종을 치면서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을 시초로 봅니다. 그 이후 1318년 교황 요한 22세가 저녁에 종이 울리면 평화를 위해 성모송을 세 번 바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아침에도 하게 되고 15세기에 와서는 낮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시기에는 부활삼종기도를 바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